

#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학 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간호이미지와의 융복합적 관련성

김문옥<sup>1</sup>, 차주애<sup>2\*</sup>

<sup>1</sup>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fter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Im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oon-Ok Kim<sup>1</sup>, Ju-Ae Cha<sup>2\*</sup>

<sup>1</sup>Dept. of Nursing, Munkyeong College, Assistant Professor

<sup>2</sup>Dep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13, 임상실습만족도는 3.14, 간호이미지는 3.32이었으며, 상관분석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이미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이미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 $\beta=.602$ )로 설명력은 40%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이미지, 노인간호학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간호교육 및 실습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노인간호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이미지,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image of nursing students with experience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nursing image. Data were collected from 150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1 to 23, 2016 and analyzed using SPSS / Win 23.0. Results showed, practise stress was 3.13, satisfaction, 3.14 and nursing image, 3.32.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ractice str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stress and nursing image,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image and practice satisfaction. Meanwhile, the factor affecting nursing image was practice satisfaction ( $\beta = .602$ )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0%. Therefore, effective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al strateg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nursing image and practice satisfac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Gerontological nursing,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Ju-Ae Cha(paper@policy.or.kr)

Received June 20,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August 23,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3.8%이며, 2020년과 2030년에는 각각 15.6%, 24.5%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기능장애 및 치매환자 등의 노인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노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노인환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2]. 따라서 예비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기관은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간호학 이론 및 실습교과목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3]. 이에 1981년 우리나라 간호학에서도 노인간호학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4] 이후 노인간호학 실습도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간호교육에서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적 지식을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야하는 긴장감, 불안감, 무력감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의료진 및 환자와의 관계, 같이 실습하는 동료학생과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모호한 역할과 실습 과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 병원이라는 긴장감이 넘치며 친숙하지 못한 환경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10].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축적은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져 [11] 임상실습과 간호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켜 실습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내용, 지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13], 임상실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간호대학생은 자존심에 손상을 받고 간호사가 된 후에도 업무에 충실하게 진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14].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사의 역할을 습득하고,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및 간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15-17].

간호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 생각, 느낌 등을 의미한다[18]. 이러한 간호이미지는 간호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어 간호의 질을 결정하고

[19], 간호사 자신의 갈등을 줄어뜨리게 하여 보다 향상된 간호를 제공하게 하므로 간호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20]. 특히 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노인의 건강문제가 사회적·국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노인간호 제공을 위한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의 형성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보다 자부심을 갖고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임상이나 지역사회 등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1].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이미지는 긍정적일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22]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으면 간호사이미지가 부정적일 우려가 높아진다고 하였다[23]. 또한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 관련 연구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나타내 다학제적 융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24].

지금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관련 연구는 국가고시 관련 교과목으로, 주로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 중에서 2가지 변수 이상 또는 이하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25]. 이에 노인간호학 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노인간호학 실습 교육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이미지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간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학 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노인간호학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및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연구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3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 수 13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150부(93.8%)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와 Sriavastava[26]가 개발하고, Kim과 Lee[27]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은 실습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이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27]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2.3.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28]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Kim 등[29]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부요인은 실습내용 9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이며,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Kim 등[29]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2.3.3 간호이미지

간호이미지는 Yang[30]이 개발하고 Lee와 Kim 등[31]이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부요인은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ee와 Kim 등[31]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2.3.4 자료수집 방법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은 2016년 9월 0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간호학과장과 노인간호학 교수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설문지를 배부·작성하도록 하였다.

### 2.4 자료 분석

수거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이미지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이미지 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이미지의 상관관계 비교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간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50명으로 여자가 111명(74%)이었으며 연령은 20~25세가 139명(92.7%)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 지원 동기는 '주위의 권유'가 52명(34.7%)로,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2명(48%)으로 나타났다. 노인간

호학 임상실습지에 대한 응답은 일반병원에서의 실습이 97명(64.7%)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 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유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다'가 96명(64%),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유무에서는 '있다'가 116명(77.3%)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150)

Characteristic	Categories	N(%)
Gender	Male	39(26)
	Female	111(74)
Yr	20~25	139(92.7)
	26~30	6(4)
	≥ 31	5(3.3)
Application motivation	Interest	36(24)
	Recommendation	52(34.7)
	Employment rate	50(33.3)
	etc	12(8)
Satisfaction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72(48)
	Moderate	38(25.3)
	Dissatisfied	40(26.7)
Clinical practice hospital	General hospital	97(64.7)
	Long term care hospital	53(35.3)
Changes in nursing image	Yes	96(64)
	No	54(36)
Awareness of the elderly	Yes	116(77.3)
	No	34(22.7)

### 3.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13±0.39점이었으며, 하부요인에서는 실습업무 부담 3.36±0.69점, 실습교육 환경 3.33±0.60점, 대인관계 갈등 3.11±0.52점, 바람직한 역할 모델 3.09±0.66점, 환자와의 갈등 2.49±0.42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14±0.42점이었으며, 하부요인에서는 실습환경 3.32±0.60점, 실습지도 3.17±0.61점, 실습교과 3.12±0.63점, 실습평가 3.02±0.74점, 실습내용 3.02±0.43점, 실습시간 3.01±0.72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32±0.52점이었으며, 하부요인에서는 개인적 이미지 3.53±0.71점, 전문적 이미지 3.44±0.65점, 전통적 이미지 3.28±0.59점, 사회적 이미지 3.15±0.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Nursing Image,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150)

Variable	Mean±SD	Rang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3.13±0.39	1~5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33±0.60	1~5
Undesirable role models	3.09±0.66	1~5
Practice burden	3.36±0.69	1~5
Interpersonal conflict	3.11±0.52	1~5
Conflict with the patients	2.49±0.42	1~5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3.14±0.42	1~5
Clinical practice content	3.02±0.43	1~5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3.17±0.61	1~5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32±0.60	1~5
Clinical practice time	3.01±0.72	1~5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3.02±0.74	1~5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3.12±0.63	1~5
Changes in nursing image	3.32±0.52	1~5
Traditional image	3.28±0.59	1~5
Social image	3.15±0.58	1~5
Professional image	3.44±0.65	1~5
Personal image	3.53±0.71	1~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았으며( $p<.002$ ), 간호 이미지 변화유무에서는 '없다'가 '있다'보다 높았다( $p<.049$ ). 실습 후 학생의 간호이미지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정적인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높았고( $p<.015$ ), 노인간호학 실습 후 간호이미지 인식변화는 부정적인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높았다( $p<.003$ ).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며( $p<.001$ ), 간호이미지 변화유무에서는 '있다'가 '없다'보다 높았고( $p<.006$ ), 실습 후 학생의 간호이미지에 대한 인식변화는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높았다( $p<.046$ ).

간호이미지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며( $p<.001$ ), 실습 후 학생의 간호이미지에 대한 인식변화는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높았다( $p<.003$ ).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유무에서는 '있다'가 '없다'보다 높았고( $p<.041$ ), 노인간호학 실습 후 간호이미지의 인식 변화에서는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높았다( $p<.016$ ).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Image,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Characteristic	Categories	Stress ICP*		Satisfaction ICP*		Nursing image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Gender	Male	3.04±0.43	-1.55 (.123)	3.17±0.40	0.44 (.627)	3.33±0.53	0.22 (.826)
	Female	3.16±0.38		3.13±0.43		3.31±0.52	
Yr	20~25	3.12±0.40	0.94 (.393)	3.15±0.43	0.35 (.707)	3.33±0.51	1.53 (.221)
	26~30	3.07±0.42		3.01±0.34		2.96±0.77	
	≥ 31	3.36±0.22		3.19±0.42		3.37±0.33	
Application motivation	Interest <sup>a</sup>	3.19±0.45	1.00 (.392)	3.11±0.43	0.10 (.962)	3.41±0.45	0.63 (.594)
	Recommendation <sup>b</sup>	3.09±0.41		3.16±0.43		3.31±0.51	
	Employment rate <sup>c</sup>	3.15±0.33		3.14±0.40		3.29±0.56	
	etc <sup>d</sup>	3.00±0.34		3.16±0.48		3.20±0.57	
Satisfaction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sup>a</sup>	3.09±0.38	6.27 (.002)	3.40±0.30	59.81 ( $<.001$ )	3.49±0.45	13.68 ( $<.001$ )
	Moderate <sup>b</sup>	3.09±0.31		3.09±0.26		3.32±0.46	
	Dissatisfied <sup>c</sup>	3.24±0.41		2.73±0.06		3.00±0.54	
Clinical practice hospital	General hospital	3.17±0.38	1.85 (.067)	3.13±0.45	-0.36 (.716)	3.33±0.51	0.34 (.734)
	Long term care hospital	3.05±0.41		3.16±0.37		3.30±0.54	
Changes in nursing image	Yes	3.08±0.39	-1.99 (.049)	3.21±0.39	2.81 (.006)	3.37±0.54	1.80 (.073)
	No	3.20±0.39		3.02±0.44		3.22±0.47	
image change	Positive	3.04±0.36	-2.46 (.015)	3.25±0.36	2.10 (.046)	3.45±0.49	3.06 (.003)
	Negative	3.26±0.43		3.01±0.49		3.06±0.60	
Awareness of the elderly	Yes	3.12±0.40	-0.18 (.854)	3.17±0.41	1.76 (.080)	3.36±0.54	2.06 (.041)
	No	3.14±0.37		3.03±0.43		3.16±0.43	
image change	Positive	3.06±0.40	-3.09 (.003)	3.21±0.41	1.73 (.086)	3.42±0.51	2.44 (.016)
	Negative	4.33±0.31		3.42±0.43		3.13±0.56	

3.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r=-.32, p<.001$ ),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이미지( $r=-.30,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이미지( $r=.63,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Nursing Image,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Variabl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Changes in nursing image
	r(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1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32(<.001)	1	
Changes in nursing image	-.30(<.001)	.63(<.001)	1

3.5 대상자의 간호 이미지에 미치는 요인

간호이미지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검증결과 Dubin-Watson 값은 1.892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881~.894로 0~1 사이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119~1.135으로 10보다 크지 않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 $F=33.69,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 $\beta=.602, p<.001$ )가 간호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 간의 설명력은 40%이었다.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Variables in Influencing Nursing Image in Clinical Practice

Variables	B	SE	$\beta$	t	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88	.057	-.104	-1.54	.125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778	.088	.602	8.89	<.001
Satisfaction nursing as a major	.088	.076	-.076	1.15	.261
R <sup>2</sup> =.42 Adjustive R <sup>2</sup> =.40 F=33.69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학 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위한 효율적인 실습운영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학 실습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13점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된 Jo와 Kang[32]의 연구 3.40점보다는 낮았으며, Jang[33]연구 2.62점, Hong과 Park[10]연구 2.12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wak과 Yi[34]연구와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표집차이, 실습 장소에 따른 차이로 판단되어 향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부요인에서는 실습업무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실습교육 환경 순이었다. 특히 '실습업무 부담' 영역 중 '실습 과제가 많이 부과될 때가 있다'라는 항목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Kwak과 Yi[34], Kim과 Lee[2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반면 Jo와 Kang[32]의 연구결과에서는 임상실습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졸업학년의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는데 이는 취업을 앞두고 실습현장에서의 간호사 업무가 곧바로 겪게 될 자신들의 업무로 동일시하여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Hong과 Park[10]은 실습업무 부담 중 과제를 부담보다는 임상실습을 보다 더 잘하고자하는 마음가짐과 실습자체의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보고하였다. Kwak과 Yi[34]는 과제가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Kim과 Lee[27]는 학생들이 과도한 과제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흥미롭게 실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노인간호학 실습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실습과 관련된 과도한 과제물과 보고서 작성, 발표준비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문제 중심 간호를 수행하기보다는 단순 기능적 업무, 지속적인 보살핌 등을 제공해야하므로 임상실습의 부담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임상실습지도교수는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과제물 해결에 대한 사전 지도를 충분히 하고 획일적인 과제물 위주의 평가보다는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임상실습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 및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 실습 후 간호사의 이미지 변화, 간호이미지의 긍정적·부정적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불만족 집단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wak과 Yi[34]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으나 Jung[35]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wak과 Yi[34]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학 전공에 불만족하는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간호학 실습 후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14점으로 Ju[36]연구의 3.37점, Lee[24]연구의 3.24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Ji와 Lee[37]연구의 3.04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 실습만족도에서는 실습환경 만족이 가장 높았고, 실습시간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Park과 Han[38], Gu[39]의 두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 자체에서 오는 차이뿐 아니라 실습장소 및 환경, 실습학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보이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ark과 Han[38]의 연구결과 하부요인 중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실습시간 내에 반복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로 인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실습 중 식사시간의 부족 등이 임상실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실습시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Gu[39] 역시 휴식과 함께 식사시간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하부요인의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노인간호학 실습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노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실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업무에 편중되다보니 과제물을 준비하여 발표할 시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간호학 실습을 통해 노인과의 경험과 관심이 노인에 대한 실제적인 공감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40]는 점에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습 시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00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학습의 결과는 상관없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시간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내 모의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등 적극적인 실습교육의 개발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 실습 후 간호이미지 변화, 간호이미지의 긍정적·부정적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만족하는 집단이 임상실습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Lee[24]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공과 흥미가 일치하는 경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미래의 목표와 동기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공에 대한 만족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간호학 실습 후 간호이미지는 5점 만점에 3.32점으로 Lee[41]연구의 4.01점, Gu와 Lee[23]연구 3.8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Yang[42]연구의 3.38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간호이미지에 대한 하부요인은 개인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나타나 전문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23,43]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간호기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불친절하다’, ‘짜증 섞은 투로 이야기한다’, ‘이기적이다’ 등의 개인적 이미지는 낮게 나타났다 [44].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노인과의 접촉과 경험이 노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줄임으로써 개인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지위나 인정과 같은 사회적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간호학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과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간호대학생 개개인의 경험에 의한 결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이미지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 실습 후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 노인의 인식변화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만족한 집단이 간호이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Lee[41], Gu와 Lee[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Ka[45]의 연구에서는 간호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임을 보여주었기에 긍정적인 간호이미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Lee[25], Lee[46]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간호이미지가 형성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실습 환경 개선과 실습지도교수의 정서적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0%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노인간호학에 대한 필요성과 자긍심을 느끼며, 간호교육을 통해 노인의 가치를 깨닫고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임상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 및 실습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과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간호학 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이미지와의 관계를 융복합적으로 살펴보고 간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13점,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4점, 간호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이미지와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이미지와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간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전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강화할 수

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자의 끊임없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 및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의 기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6.
- [2] H. S. Jeong. (2012).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2025-2037.
- [3] M. Waldner & J. Olson. (2007).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3(1), 1-14.  
DOI : 10.2202/1548-923x.1317
- [4] Y. S. Hong & M. S. Song. (1985).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integr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in baccalaureate nursing curricula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5(1), 36-45.
- [5] H. S. Kim. (200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6(1), 64-76.
- [6]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7] J. E. Song & H. J. Chae. (2014).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02-512.
- [8] E. J. Shin & Y. S. Park. (2013).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5636-5645.
- [9] Y. K. Yang, K. S. Han, M. H. Bae & S. H. Yang.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 23-33.
- [10] S. S. Hong & M. J. Park. (2014).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369-377.
- [11] J. I. Kim & J. S. Lee. (2011). Effects of clinical training on stress, anxiety and changes in autonomic nervous syst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3(2), 102-108.
- [12] J. S. Won, K. S. Kim, K. H. Kim, W. O. Kim, J. H. You & H. S. Jo. (2000). The effect of foot massage on stress in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7(2), 1-16.
- [13] I. S. Yang.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4(2), 289-306.
- [14] K. J. Cho & H. S. Kang.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 [15] Y. M. Kwon & E. J. Yeu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2), 285-292.
- [16] J. A. Yee. (2004).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3), 325-334.
- [17] S. J. Han.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132-146.
- [18] P. Kotler & R. N. Clarke. (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19] J. S. Won, (1996). A study on the nursing image of junior college students. *Annual Bulletin of Seoul Health Junior College*, 16, 163-181.
- [20] M. S. Jung. (2004). A study on image of nurses: A comparison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 in one hospital. *Journal of Clinical Nursing Research*, 9, 68-80.
- [21] D. J. Oh, C. J. Choi, B. E. Kwon & Y. H. Park. (2005).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64-72.
- [22] H. H. Cho & N. H. Kim. (2014).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 [23] H. J. Gu & O. S. Lee.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356-7366.
- [24] H. J. Lee. (2016).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75-83.
- [25] J. Y. Lee. (2011). Correlation between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ducation Research society*, 12(4), 213-224.
- [26] D. L. Beck & R. Srivastava.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27]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28] K. J. Cho & H. S. Kang.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 [29]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2), 219-231.
- [30] I. S. Yang.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4(2), 289-306.
- [31]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2), 219-231.
- [32] E. J. Jo, J. M. Kang & K. M. Lim. (2017).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94-104.
- [33] I. S. Jang. (2016).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3), 749-761.
- [34] H. W. Kwak & J. E. Yi. (2016).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147-155.
- [35] S. W. Jung, R. H. Hwang & Y. S. Lee. (2017).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265-272.
- [36] H. J. Ju. (2017).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213-224.
- [37] E. M. Ji & J. H. Lee. (2014).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1125-1140.
- [38] W. J. Park & J. Y. Han. (2011).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and Society Nurse Education*, 17(3), 365-375.
- [39] H. J. Gu.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205-215.
- [40] H. S. Jeong. (2012).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4), 2025-2037.
- [41] J. Y. Lee. (2017). A study on nursing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284-295.
- [42] J. J. Yang.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1), 64-72.
- [43]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 [44] H. J. Lee. (2014). Image of nursing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 129-135.
- [45] M. J. Ka et al. (2010).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Ewha Academy of Nursing*, 44, 1-15.
- [46] K. H. Lee. (2010).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26-34.

김 문 옥(Kim, Moon Ok)

[정회원]



- 2017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박통합(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5년 8월: 한려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순천청암대학교 초빙교원
- 2018년 3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건강사정
- E-Mail : gaea513@hanmail.net

차 주 애(Cha, Ju Ae)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7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박사
- 2013년 7월 ~ 2015년 3월 : 한려대학교 조교수
- 2015년 4월 ~ 2017년 3월 : 전북과학대학교 조교수
- 2017년 4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보건교육학
- E-Mail : ck1093@nate.com